

청렴(淸廉) 서한문

존경하는 수협 임직원 여러분 !

석촌호수에 활짝 핀 벚꽃과 목련을 보며 어느 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난 후 수협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잖이
놀랐고,

수협중앙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수협중앙회에서
일을 하면서 부정청탁 등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직원들이
제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수협중앙회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라는 것은 어업인의
행복지수가 4등급인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협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조직 내에 반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중앙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반칙은
없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행해 오던 반칙도 이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회와 조합이 잘 살고, 조합원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어업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협도 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렴(淸廉) 서한문을 통해 직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절대 줄 세우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 세우기는 부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줄 세우기를 시키지도
말고 줄을 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는 원칙이라는 범주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표
이사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우리 수협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칙 있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불합리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원칙이 통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앞장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추진하여 수협을 청렴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은 우리 수협이 올곧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청렴한 수협을 만드는 일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행해지는 대단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임직원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或者)는 “내가 청렴(清廉)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며, 나만 청렴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며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렴(清廉)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수협을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협동조합으로 변모시키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협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4. 1.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